

FINE ISSUE PAPER

Korea University
Center of Future Innovation
for New Education(FINE)

Vol. 4
(2025년 6월)

디지털 읽기 시대, 리터러시의 현황과 교육적 시사점

이순영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연구원
Korea University
Center of
Future Innovation for New Education

‘리터러시(literacy)’라는 용어는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교육의 출발점은 문자 학습이기에 ‘리터러시를 갖춘 이(literate person)’는 교육받은 이, 즉 문맹(illiteracy)을 벗어난 이를 의미했다. 그런데 20세기 말부터 문식 환경이 디지털 공간까지 확장되면서 리터러시의 개념도 ‘온·오프라인의 공간에서 다양한 기호 체계(문자, 이미지, 동영상 또는 이들의 결합)를 활용하는 일련의 이해와 표현 및 소통 행위’로 재개념화되고 있다(Moje & Ellison, 2016; 옥현진, 2019). 특히 최근에는 Artificial Intelligence(AI)가 인간 수준 이상의 리터러시를 수행하고 AI 특이점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리터러시 교육과 연구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1

리터러시의 전환 : 구술 시대, 인쇄 시대, 디지털 시대

현존하는 문자 기록물의 역사는 5,300년(B.C. 3,300~현재) 이상이다. 그러나 15세기 중반 급속활자 인쇄술이 개발되고 책의 대량 생산과 유통이 시작된 시기에도 인류의 대부분은 문맹이었다. 이들은 구어와 기억에 의존하며 ‘구술 시대’를 살아갔다. 문자 기반 리터러시의 확산이 가시화된 것은 19세기의 일이다. 1820년 ‘세계 문해율’(World Literacy Rate)¹⁾은 불과 12%였으나, 1970년에 56%를 거쳐 2023년에 87.4%까지 증가했다(Van Zanden 외, 2014; World Bank, 2024).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리터러시의 본격적 확산은 최근 200년, 특히 1970년대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일임을 알 수 있다. 리터러시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20세기 말에 인쇄 문화는 정점에 이른다. 21세기의 초반인 현재 스마트폰과 AI가 인간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견인하는 디지털 혁명이 진행 중이다. 오랜 구술 시대와 인쇄 시대를 거쳐 디지털 시대에 이르기까지 리터러시는 시대마다 그 실천(literacy practices : 읽기, 쓰기, 소통)은 물론 행위의 주체(독자/필자, 의사소통자), 텍스트(콘텐츠), 상황(목적, 매체, 환경) 측면에서 크게 변화해 왔다. 디지털 시대는 문자 중심의 인쇄 시대와 달리 다시 구술성(orality)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보기(viewing)와 촉각 기반의 상호작용(haptic reading)이 중시되는 등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Ong, 2002; 이재현, 2013).

2

리터러시의 현재와 문제의식

현재의 리터러시는 digital-cyber 시대로의 전환 속에서 명과 암이 혼재하고 있다. 문해율이 증가하고, 문식 환경의 변화에 따른 리터러시의 확장(문자에만 의존하는 대신 다양한 기호 체계 사용, 실물 인쇄물에 한정하는 대신 온·오프라인 콘텐츠의 생산과 활용, 인간과 AI의 협업을 통한 리터러시 수행), 그리고 리터러시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요구 및 실제 수행 수준이 더욱 분화되고 고도화되는 양상은 긍정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현시점을 살아가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은 일상과

1) 15세 이상 전 세계 인구 중 읽기·쓰기가 가능한 이의 비율, ‘성인 문해율’이라고 명명되기도 한다.

업무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독해력, 작문력,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지식생산력, 사회적 소통과 참여 능력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보급에 따라 인간의 자연 지능과 AI 지능이 협업하면서 지식의 수용과 생산 체제에 큰 변화가 진행 중이다(Kalantzis & Cope, 2024).

리터러시의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새로운 가능성이 확장되는 가운데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축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인간이 더는 정교하게 읽고 쓰고 사고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는 읽지 않는 비독서(aliteracy)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²⁾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문화체육관광부, 2023)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종이책을 읽은 적이 있는 성인의 비율은 32.3%(연간 종이책 독서율)에 불과했다. 전자책과 오디오북 이용까지 모두 포함한 연간 종합 독서율도 43%로 역대 최저치였다. 독서율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28.4%나 하락하였다. 이제 한국 성인 중 과반은 1년간 책을 읽은 적 없는(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모두 읽거나 듣지 않음) 비독자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제4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24)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비독자의 독서 유인(독자의 저변 확대)으로 설정하였다.

리터러시의 수행이 더는 인간의 전유가 아닌 시대, 아니 극단적으로는 AI의 영역으로 이양되는 시대가 되었다. 비독서의 문제는 독서 동기, 흥미, 태도 및 가치인식의 하락과도 연동되며, 독서 행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비독서의 논리를 펼치는 반 독서 문화(anti-reading culture)도 형성되고 있다(이순영, 2019). 또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AI가 리터러시를 담당하고 인간의 비독서 상태가 강화되면서 실질 독해력의 정체 및 하락 현상, ‘얕은 읽기’의 문제, 출생 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성장한 후속 세대가 경험하는 문자 학습 및 리터러시 습득의 어려움, 리터러시 수준의 양극화 현상 등이 학계와 현장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Robinson & Hollett, 2024; Beck & Levine, 2024).

3

리터러시 ‘수준’의 하락세와 양극화 문제

리터러시의 양극화는 ‘특정 집단이나 사회 구성원 간의 리터러시 수준이 벌어져 그 수준이 서로 다른 정도가 심화되는 현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리터러시가 분화되고 고도화되면서 개인 및 집단 간 격차(gap)가 발생하고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리터러시의 양극화는 지식·고용·소득의 격차를 초래해 다양한 갈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OECD, 2018). 한국의 청소년과 성인 집단의 리터러시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양극화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2)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문화체육관광부, 2023)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종이책을 읽은 적이 있는 성인의 비율은 32.3%(연간 종이책 독서율)에 불과했다. 전자책과 오디오북 이용까지 모두 포함한 연간 종합 독서율도 43%로 역대 최저치였다. 독서율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28.4%나 하락하였다. 이제 한국 성인 중 과반은 1년간 책을 읽은 적 없는(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모두 읽거나 듣지 않음) 비독자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제4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24)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비독자의 독서 유인(독자의 저변 확대)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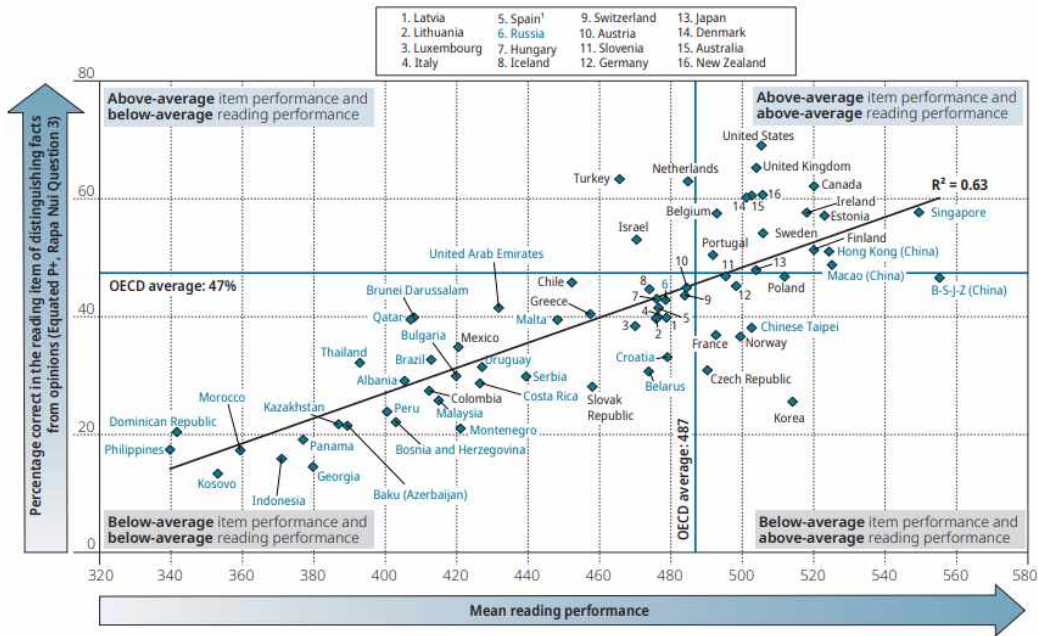
■ **한국 청소년의 리터러시 수준 (PISA 결과 기반):**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학생들(만 15세, 2022년 기준 80개국 참여)의 2000~2022년까지의 읽기능력의 추이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 학생들의 읽기 점수는 PISA 2006에서 평균 556점으로 참여국 중 가장 높은 성취를 보였다. 이후 읽기 점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고점 대비 41점 정도 하락한 상황이다(PISA 2018에서 514점, PISA 2022 515점). PISA 2006과 2022의 읽기 성취수준별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최상위 성취수준인 6수준의 비율은 0%에서 2.5%까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동일 기간에 최하위 수준인 1수준 이하의 비율도 5.8%에서 14.7%까지 크게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낮은 성취’를 의미하여 ‘하 수준’으로 명명되는 2수준 이하의 비율도 18.3%에서 34.1%까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2006년 이래 우리 학생들의 읽기 성취수준의 변화를 ‘전반적 하락세 속 양극화’로 설명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PISA 2018과 2022 결과를 대비해 보면 이러한 변화를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PISA 2018과 2022, 두 주기 동안 한국 학생들의 읽기 결과는 7개 하위 범주(텍스트 내 정보의 탐색과 확인, 관련 텍스트의 검색과 선택, 축자적 의미 표상, 통합과 추론 형성, 정보의 질과 신뢰성 평가, 내용과 형식 성찰, 갈등의 발견과 조정) 중 ‘축자적 의미 표상’을 제외한 6개 범주에서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정답률의 차이가 커졌다(김현우 외, 2023:66). 상 집단은 4개 하위 범주에서, 중 집단은 5개 하위 범주에서 정답률이 상승하였으나, 하 집단은 모든 하위 범주에서 정답률이 하락하였다.

PISA 2022(김현우 외, 2023:66-74)에 한정해 결과를 살펴보면, 상-하 집단의 정답률의 차이가 ‘정보의 질과 신뢰성 평가’(64.84%p)와 ‘내용과 형식 성찰’(61.45%p)에서 최대치로 벌어졌다. 이 두 하위 범주는 모두 ‘텍스트에 대한 평가와 성찰’ 범주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PISA 2018과 2022에서 모두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하위 범주도 ‘텍스트에 대한 평가와 성찰’ 범주에 속한 ‘갈등의 발견과 조정’이었다. ‘갈등의 발견과 조정’은 서로 모순되는 텍스트를 직면했을 때, 텍스트 사이의 갈등을 인식하고 이를 조정하는 영역이다. ‘갈등의 발견과 조정’을 위해서는 텍스트 내/간 불일치하는 정보를 인지하고, 주장의 타당성 또는 출처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작업이 필요한데, 한국 학생들이 이에 대한 수행 능력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위 문제와 관련하여 읽기가 주영역 평가였던 PISA 2018에서는 전 세계 청소년의 ‘사실·의견 구별 문항의 정답률’과 ‘읽기 성취도(읽기 영역 점수)’를 확인하였는데, 한국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는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수 있는 문항의 정답률은 약 25.6%로 OECD 평균인 47.0%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한국은 읽기 성취도 점수가 OECD 평균인 487점 이상인 모든 참여국 중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문항의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 PISA 2018 결과(OECD, 2021:44)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편향된 정보(biased information)를 판별하는 교육을 받은 이의 비율도 50%로, OECD 평균인 54%보다 낮은 상황이었다. 텍스트 내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이나 정보의 주관성 및 편향성을 판별하는 능력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 능력으로 우리 학생들의 이러한 성취 특성에 문제의식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읽기 문항의 정답률과 읽기 성취도 (OECD, 2021:47)



1. For the comparability of Spain's data see Readers' guide of this report or PISA 2018 Results (Volume I):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 Annex A9.

Source: OECD, PISA 2018 Database, Tables B.2.1 and B.2.8.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39458>

■ **한국 성인의 리터러시 수준 (PIAAC 결과 기반):** 성인의 리터러시 현황은 PIAAC(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PIAAC는 만 16세 이상 65세를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씩 리터러시(literacy)와 수리력(numeracy) 능력을 평가하는 OECD 주관의 성인역량평가이다. 한국의 리터러시 점수는 PIAAC 2013(1주기) 때 273점이었으나, 10년 후 시행된 PIAAC 2023(2주기)에는 23점이 하락한 249점이었다. 리터러시 점수의 하락폭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PIAAC 2023에서 한국 성인들의 리터러시 수준별 분포는 중 수준 이하(3수준 이하)의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고, 상 수준(4수준 이상)의 비율은 낮은 특성을 보였다. 1주기와 2주기 결과를 살펴보면, 하 수준이 크게 증가하고(+17.5%p) 상 수준은 약간 감소(-2.53%p)하였다.³⁾ PIAAC 2013(1주기) 대비 PIAAC 2023(2주기)의 리터러시 평가 결과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국가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하 수준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또한 덴마크,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독일,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호주, 체코는 상 수준의 비율이 더 증가하였다.

10, 25, 75, 90분위(percentile)에 해당하는 이의 리터러시 점수 차의 변화(2주기 점수-1주기 점수)도 모두 음수이고 특히 10, 25분위의 하락폭이 30점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PIAAC 2013과 2023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10년간 한국 성인들의 리터러시 수준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하위 수준의 점수 하락폭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PIAAC 2013(1주기) 대비 PIAAC 2023(2주기)의 리터러시 평가 결과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국가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하 수준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또한 덴마크,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독일,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호주, 체코는 상 수준의 비율이 더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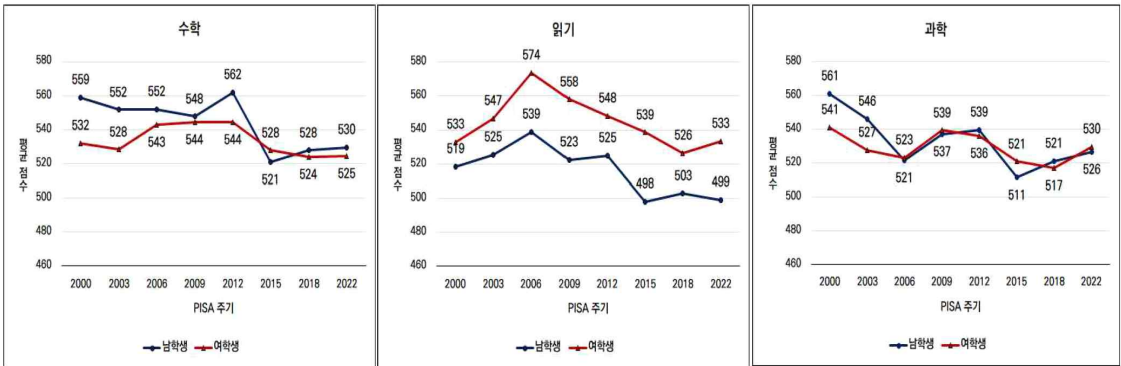
4

성별과 연령에 따른 리터러시의 양극화

리터러시의 양극화에는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 국가, 인종 등 다양한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고흥석, 2023; 권오민 외, 2025; 김지민 외, 2024; 송원숙, 2021).

■ **성별 리터러시의 양극화:** ‘성별’은 리터러시의 양극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림 2]를 기반으로 PISA의 성별 ‘읽기’ 점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읽기 성차는 14~41점이었고, 모든 주기에서 성별에 따른 읽기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성별에 따른 성취수준별 비율에서도 하 수준인 ‘1b’, ‘1a’, ‘2수준’에서는 모두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중 수준 이상(3수준 이상)에서는 모두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한국의 만 15세 청소년(PISA)과 달리 만 16~65세 성인의 리터러시 평가(PIAAC)에서는 성별 격차가 존재(남성 점수 < 여성 점수) 하였으나 차이가 미미했다. 특히 2주기의 성별 격차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어들고, 하 수준에서 남녀 차이가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2주기 때 한국 성인들의 리터러시 점수가 크게 낮아진 결과와 연동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PISA 수학, 읽기, 과학 점수의 ‘성별’ 추이 (교육부, 20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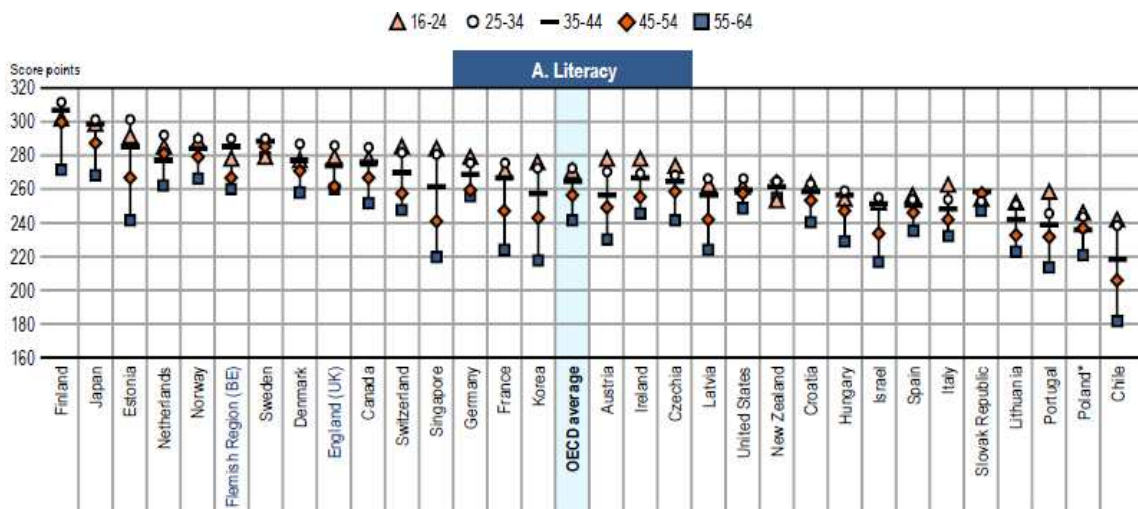


리터러시의 성별 격차는 ‘디지털 리터러시’에서도 확인되는데, 여성의 성취가 남성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초등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에서도 성별 격차가 확인되었고(김한성 외, 2024), 중학생의 ICT 리터러시에서도 성별 격차가 확인되었으며(백순근 외, 2009), 10~20대 청년 321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beta=.17$, $p<.05$)가 확인되었다(송원숙, 2021). 이외에도 대학생 37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성별과 소속학과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김태영, 2022), 대학생 29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별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예측 요인임($\beta=.51$, $p<.01$)을 밝힌 바 있다(장나영, 2023). 그러나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밝힌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4’(권오민 외, 2025:24)에서는 일반 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0%로 설정할 때, 4대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중 남성의 디지털정보화 수준(104.9%)이 취약계층

여성(94.8%)보다 더 높았다. 이처럼 성별 격차는 연령이나 계층 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관 요인의 관계를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연령(대)별 리터러시의 양극화:** 성별과 함께 연령은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이다. PIAAC 2023 결과에 의하면, 한국 성인의 리터러시 점수는 참여국 중에서도 연령대별(34세 이하, 35~44, 45~54, 55~64세) 격차가 컸다(한국은 연령대별 격차가 가장 큰 네 국가에 포함). 연령이 낮은 두 집단(16~24세, 25~34세)에서는 리터러시의 격차가 거의 없는 반면 35세 이상의 세 집단에서는 연령대에 따른 리터러시의 차이가 뚜렷했다. 특히 55~64세(고연령 집단)의 리터러시는 220점 이하로 매우 낮았다.

[그림 3] PIAAC 2023 연령대별 리터러시 점수 (OECD, 2024:72)



PIAAC 2013과 2023의 연령대별 리터러시 점수 변화도 55~65세(고연령층)가 가장 크게 하락(약 25점)한 반면, 연령이 낮은 34세 이하 집단에서는 약 15점 정도만 하락하여 차이가 있었다. 또한 동일 연령 집단 내에서도 리터러시 점수에 대한 고령화 효과(effect of aging on literacy proficiency)가 확인되었다. 고령화 효과는 27~34세 집단부터 시작되었고, 다른 나라보다 시작 연령이 낮은 편이다(35세나 55세 이후에 고령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국가도 있음).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고령화 효과도 가중되었다(OECD, 2024:124).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연령대별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다(노일경, 2023). 성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 통계에 의하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20~30대가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하락하여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장 낮았다. 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농어민보다 낮아 연령에 따른 리터러시의 양극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령에 기반한 세대별(산업화, 베이비부머, 386, X, 밀레니얼, Z) 리터러시의 차이도 유의하였다(함동수, 2021). 그러나 안정임·서윤경(2014)에 의하면 청소년 집단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예상과 달리 높지 않으며, 고연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도 세부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5

리터러시 연구와 교육의 방향

지금까지 디지털 혁명기에 진행되고 있는 리터러시의 현황과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리터러시 교육가와 연구자들은 이러한 추이를 디지털 시대의 변화와 연계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교육과 연구의 방향도 새롭게 탐색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공통의 방향은 정교하고 비판적 사고의 강화이다(Barron, 2021). 이에 리터러시 교육 및 연구 방향을 아래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환경의 기본 속성(현실 재현, 탈 진실, 필터 버블) 이해
- 꼼꼼하고 깊게 읽기 능력(close & deep reading) 증진
-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 능력 증진
- 디지털 환경 및 AI 지능과 협업하는 리터러시 수행 능력과 윤리의식의 습득
- 리터러시의 사회적 기능(사회적 불평등과 계층화 해소, 사회적 소통과 참여 등) 강화
- 리터러시 교육 기회의 지속적 제공 및 강화(학교-직장-사회), 리터러시 문화 형성

리터러시는 인간 지력의 근간이다. 현재 진행 중인 리터러시의 확장과 변화는 인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역량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리터러시 수행 주체 간의 격차를 심화시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리터러시 교육과 연구는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어포던스(affordance)를 탐색하면서도 인간의 비판적, 윤리적, 정서적, 창의적, 주체적 사고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 더 정교하고 다층적인 접근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흥석(2023).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지역 격차, 11회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KISDI STAT 리포트 23-22호, 1-5.
- 권오민·이상민·이철민·최문실·정현민·조경재(2025). 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김지민·이진아·홍민지(2024). 고등학생의 ICT리터러시 영향요인과 학교 교육의 역할: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다층모형 분석, GR연구논총26(3), 211-236.
- 김태영(2022). 단대별 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차이. 인문사회 21, 13(3), 아시아문화학술원, 137-151.
- 김현우·이신영·차경미·김준엽·채서현(2023). PISA 2022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의 성취 특성 분석 : 수학, 읽기, 과학, 창의적 사고력(RRE 2024-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부(20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 결과 발표 (12월 5일자 보도자료).
- 노일경(2023).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 한국의 사회동향 2023, 통계개발원.
- 문화체육관광부(2023).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국가통계).
- 문화체육관광부(2024). 제4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24~2028).
- 백순근·김동일·김미량·김혜숙·유예림·박소화·김세원·김미림(2009).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ICT 리터러시 평가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0(2), 서울대 교육연구소, 383-406.
- 송원숙(202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SNS 이용행태, 부모의 양육 태도를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2(2), 한국리터러시학회, 265-293.
- 안정임·서윤경(201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의 세부요인 분석 : 세대와 경제수준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2(2), 한국디지털정책학회, 69-78.
- 옥현진(2019).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비판적 읽기, 새국어생활, 29(2), 국립국어원, 47-61.
- 이순영(2019). 독자와 비독자 이해하기: 용어, 현황, 특성, 생성·전환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0(6), 한국리터러시학회, 357-384.
- 이재현(2013). 디지털 시대의 읽기 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장나영(2023). 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에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교양교육연구 17(5), 한국 교양교육학회, 93-111.
- 함동수(2021).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세대 효과에 관한 연구: 연령과 세대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ron, N. S. (2021). *How We Read Now : Strategic Choices for Print, Screen, and Audio*, Oxford University Press.
- Beck, S. W., & Levine, S. (2024). The next word: A framework for imagining the benefits and harms of Generative AI as a resource for learning to write, *Reading Research Quarterly*, 59(4), 706-715.
- Kalantzis, M. & Cope, B. (2024). Literacy in the tim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ading Research Quarterly*, 60(1), 1-34.
- Moje, E. B., & Ellison, T. L. (2016). Extended-and Extending-Literacies. *Journal of Education*, 196(3), 27-34
- OECD (2018). *Can We Close Gaps in Literacy by Social Background over the Life Course? : Evidence form Synthetic 1950-1980 Birth Cohorts*, OECD Education

- Working Paper No. 178*,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21), *21st-Century Readers: Developing Literacy Skills in a Digital World*, PISA,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83d84cb-en>.
- OECD (2024). *Do Adults Have the Skills They Need to Thrive in a Changing World? : Survey of Adult Skills 2023*, OECD Publishing, Paris.
- Ong, W. J. (2002). *Orality and Literacy* (3rd ed.), London, Routledge.
- Robinson, B., & Hollett, T. (2024). Literacy in the age of AI, *Reading Research Quarterly*, 59(4), 555-559.
- Van Zanden, J. L., Baten, J., d'Ercole, M. M., Rijpma, A., & Timmer, M. P. (2014). *How was life?: Global well-being since 1820*, OECD.
- World Bank (2024); Various sources (2018) - processed by Our World in Data. "Literacy rate" [dataset]. World Bank, "World Bank Education Statistics (EdStats)"; Various sources, "Cross-country literacy rates" [original data].



이순영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독서학자이다.
독자와 비독자의 다양한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방법을 탐색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있다.
현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이사이고,
한국독서학회와 한국리터러시학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미래교육연구원의 공식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